

陶磁花器類 色釉研究

서울大學校 美術大學

權 純 亨

目 次

1. 序論
2. 作品制作(寫眞)
3. 作品制作過程概要
4. 結論

序論

人類文化의 發祥地를 이루는 各地域에서 發生된 흙으로 成形된 器物들은 共通된 地域的 時代的 特性을 지니며 發展되어 왔다. 人間이 흙을 빚어 日常生活用器를 빚어 불에 구워 使用해 온 造形意識은 現在까지도 世界的으로 產業化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隨伴하여 便利하고 能率의 道具에 말려 들어 裝飾性있는 効果를 노리는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造形活動의 陶磁藝術은 그 表現技法에 對한 보다 심층적인 研究가 요청되고 그 研究對象에서도 物體에 最終的으로 입혀지는 웃의 역할을 하는 釉藥의 다양한 芬色을 為한 研究는 활발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다.

釉藥이란 粘土製品의 表面에 熔着한 유리質로서 그 機能은 材料에 對한 耐久性의 強度를 높이고 吸水性의 素地에 膜을 입혀 非吸水性의 表面을 만들어주고 豐富한 色相變化를 모색함으로써 裝飾效果를 實現하여 그릇의 機能을 充足시키는데 있다.

陶磁器에 있어서 素地와 燒成과 함께 이루어지는 釉藥芬色의 多樣性은 形態의 多樣性에 따른 必然的인 要求이기도 하다. 그리고 釉藥은 흙의 種類에 따라 또 燒成方法 燒成條件에 따라 釉藥의 種類에 따라 그 芬色은 모두 다 달라진다.

이 研究는 各種의 釉藥들 가운데서도 白雲石釉를 中心으로 芬色가능성을 나타냄으로서 본인의 花器作品에 試圖하여 直接 또는 間接的인 影響과 効果를 그 目的으로 하였다.

아직 國內의 資料의 交流와 技術情報의 交換으로 研究對象을 麗州地域에서 生產하는 粘土를 對象으로 試圖하였다.

作品制作 過程 概要

1. 粘土選擇

여주(麗州)의 쌔리산白土와 粘土를 아래와 같이 磁土로 配合

여주白土	4
여주粘土	4
가오링	0.5
安養長石	0.5

2. 成型方法

전기물레로 成型

3. 釉藥配合

가. 白雲石釉

長石	30
硅石	30
Kaolin	5
炭酸칼슘	7.5
白雲石	17.5
Bentonite	2

나. 釉藥에 使用된 金屬酸化物

Fe_2O_3	酸化鐵黃色·赤色(酸化鐵)
$CuCo_3$	炭酸銅青色·綠色(")
$CoCo_3$	炭酸코발트青色(")
$MNCo_3$	炭酸망강茶褐色(")

4. 燒成過程

가. 窯爐

單獨窯(角窯)

- 나. 使用燃料
輕油(酸化焰)
- 다. 溫度測定
溫度測定計 Pyrometer使用
세겔콘(Seger Corn)使用
燒成溫度 1250°C~1300°C(SK. 8, 9, 10)

結 論

人間은 각己 自己의 感覺器官을 通하여 趣味나 樂을 形成한다. 日常生活에서 우리들은 生活空間에서 花器類의 裝飾은 必須的인 것으로 그의 活用廣는 漸次的으로 高潮되고 있다.

本研究過程에서 成形方向과 施釉處理에 있어서 原料使用의 局限된 與件에서도 이와 같이 多樣한 實驗結果를 이루고 있는 陶磁藝術作業을 無限의 表現手段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多角的으로 應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花器類의 色釉處理에 있어서 成形된 形態와 烧成過程을 거친 色釉의 摻色에서 오는 調和는 매우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으로 實驗을 바탕으로 結果를 重視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實驗過程과 전개는 앞으로 陶磁造形의 廣範圍한 領域에 있어서 色釉의 利用을 擴大하고 더 많은 種類의 釉藥을 開發하는데 資料提供의 役割이 되리라고 보면서 많은 研究가 持續되어 나가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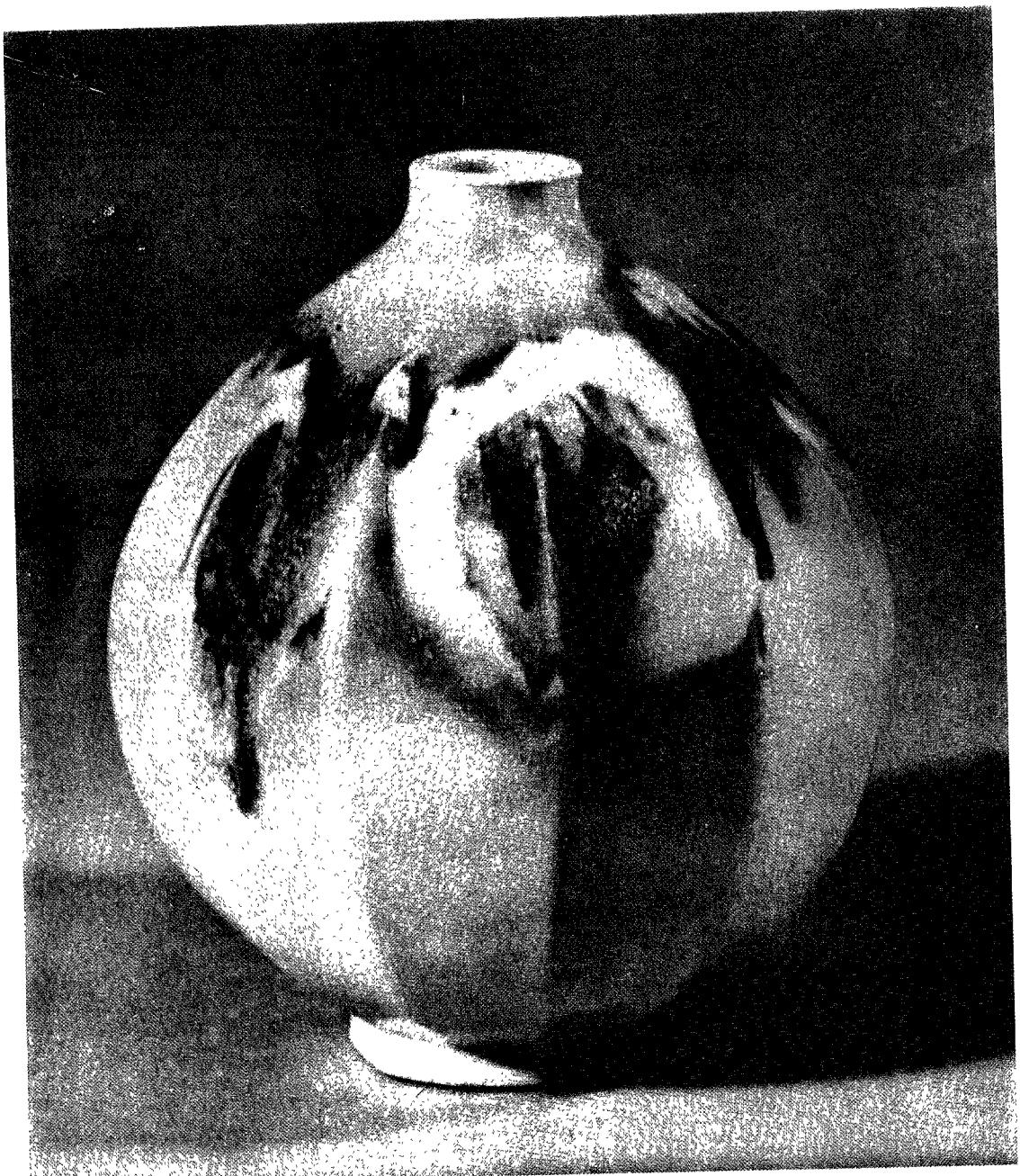
鐵釉梅花圖 瓶(白雲釉)

高 28cm, 徑 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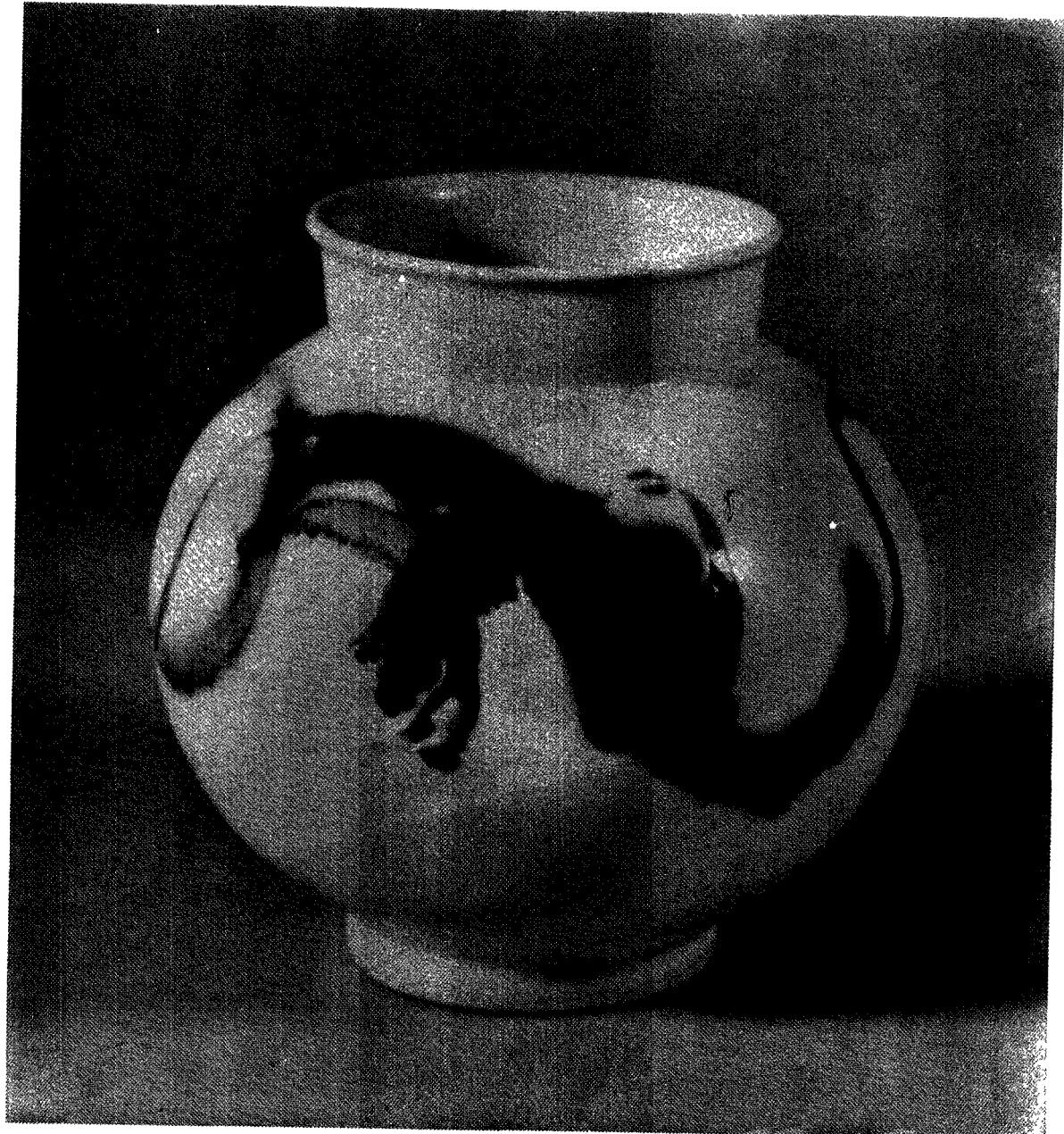
花器(白雲釉)

高 54.5cm, 徑 21.5cm



角瓶(白雲釉)

高 26cm, 徑 2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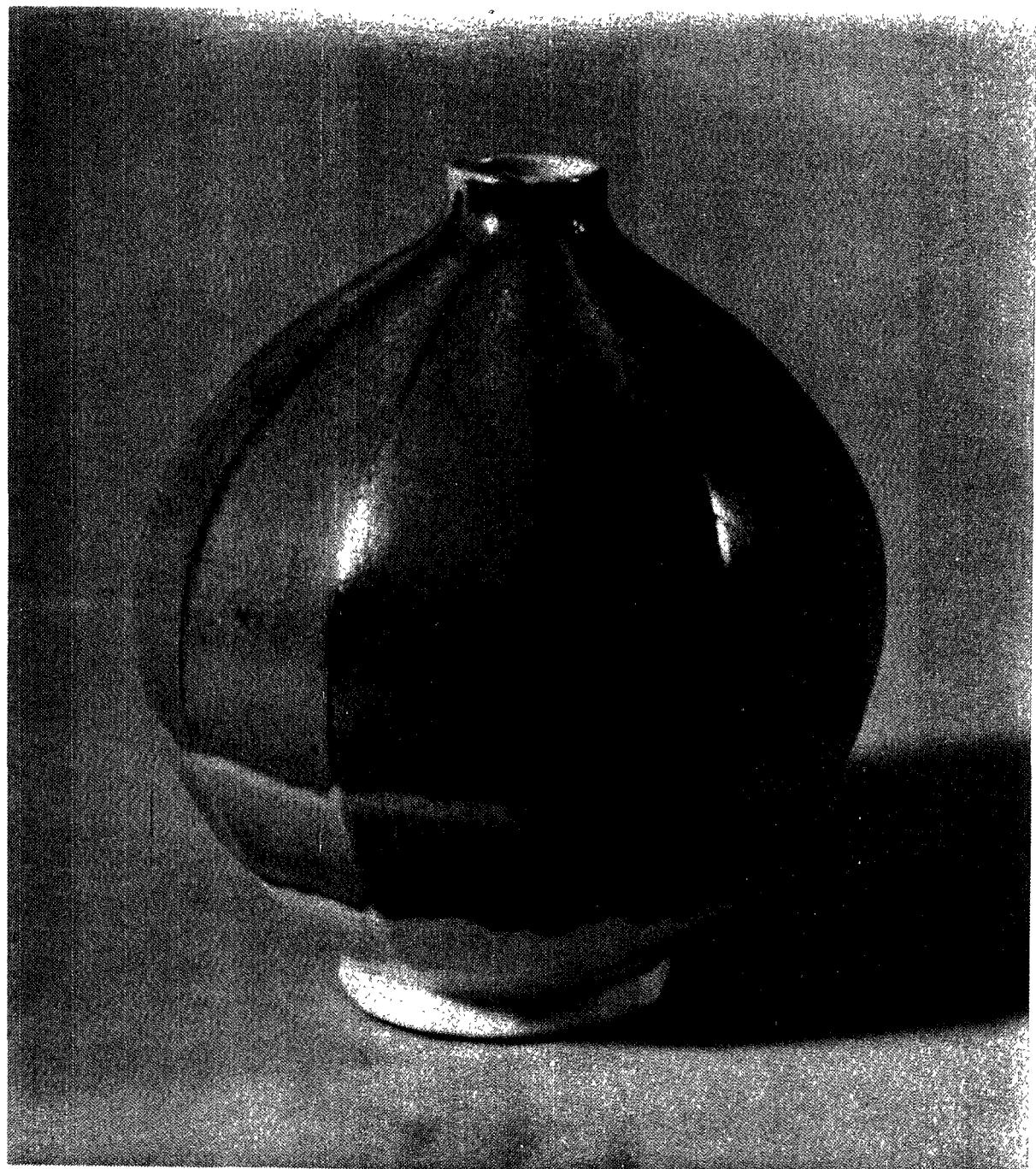
雲文花器(白雲釉)

高 20cm, 徑 21cm



花文花器(白雲釉)

高 20.5cm, 徑 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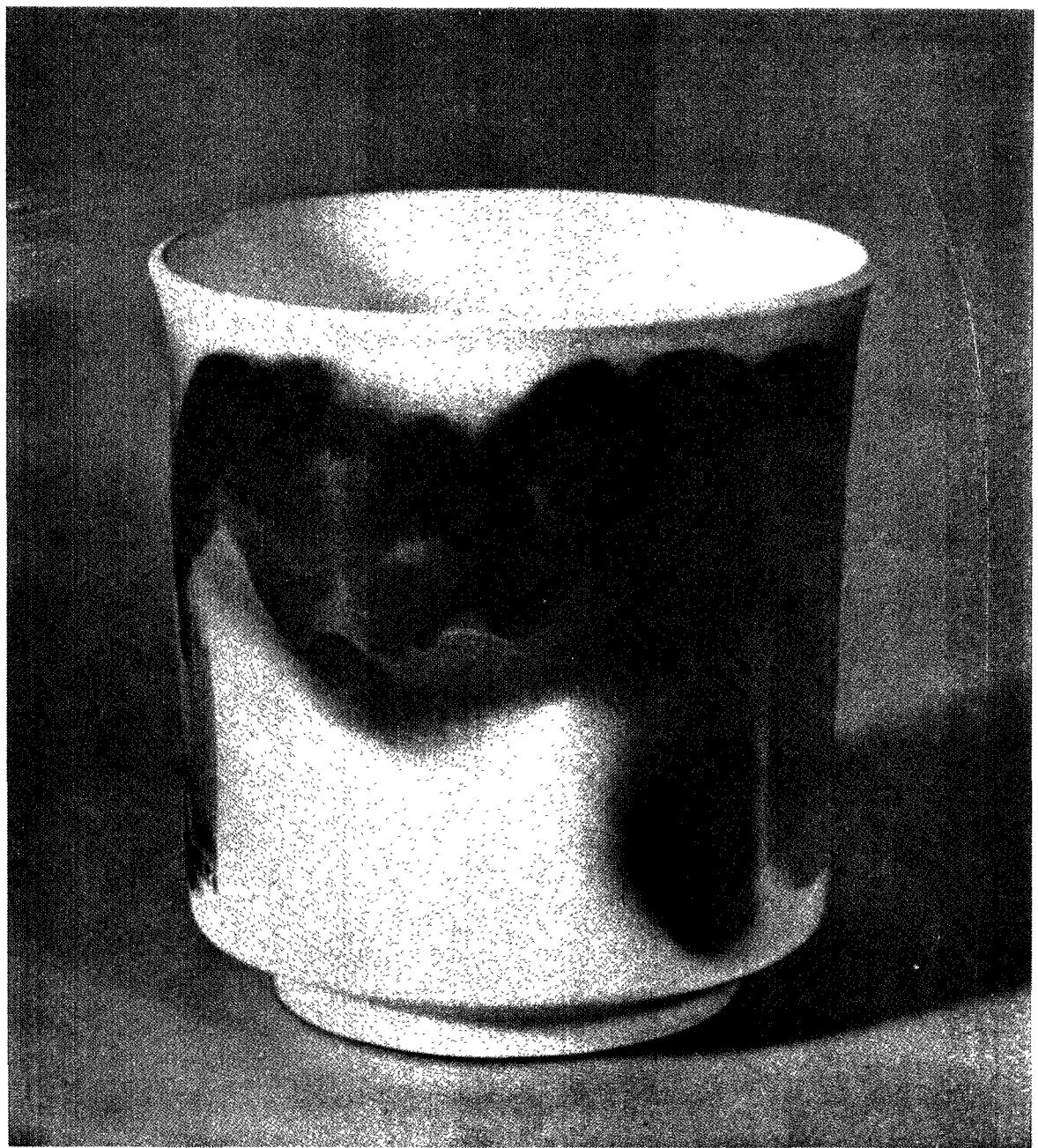
角瓶(白雲釉)

高 25cm, 徑 22cm



花瓶(白雲釉)

高 28.5cm, 徑 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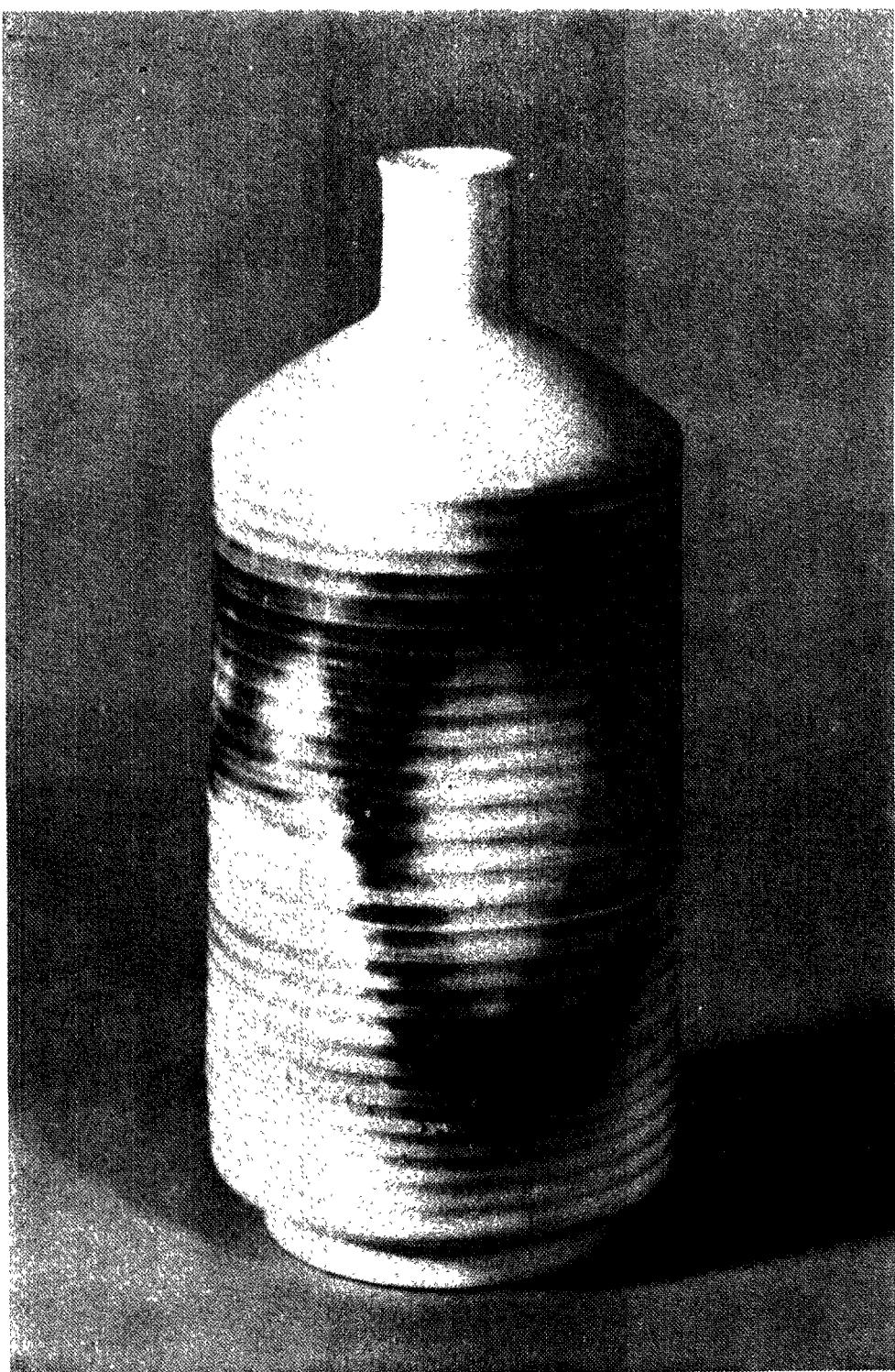
花器(白雲釉)

高 27.5cm, 徑 26cm



角花器(白雲釉)

21cm, 徑 24cm



角瓶(白雲釉)

高 37cm, 徑 15.5cm